

신경숙의 「외판방」에 나타난 1970~80년대 서울의 도시이미지와 심상지리

박성신*

The Urban Image and Imaginative Geography of Seoul in the 1970s~80s focused on 「The Solitary Room」 by Kyung-sook Shin

Sungsine Pak*

요약 : 인간은 삶의 과정에서 공간과 관계를 맺고 장소성을 구축한다. 「외판방」은 열여섯살의 신경숙의 1978년부터 1981년까지 4년 동안 초기 서울살이에 대한 자전적 소설로, 작가의 일상동선과 공간 성격에 따라 구분한 도시공간에 드러난 심상과 공간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주거공간 별집은 최소 거주면적과 주거권이 확보되지 못한 채 임대수익만을 추구하는 불법건축물로, 임시숙소이자 타자화된 공간으로 인식된다. 일터였던 공장은 기계화된 노동공간으로 생산의 속도에 따른 분업화와 기호화를 당연시하며, 공장에서 이름을 잃어버린 A라인 1번 여공은 사회적 관계를 제한받는다. 산업체특별학급은 일학년 사반 여학생에게 작가의 꿈을 키워나갔던 교육공간이었으나, 농촌과 지방 청년층의 희생을 전제로 한 자본주의와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도구화된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일상생활공간인 시장과 골목길은 십 대 소녀가 고단한 일상을 반복하는 가부장적 젠더 관념적 도시공간이다. 1970~80년대 서울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중심에서 성장한 대도시로, 원초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 고향 정읍과 타향 서울은 농촌과 도시, 전근대와 근대, 공동체적 연대와 익명의 개인으로 표출되는 이항대립적 구도를 통해 시대와 공간의 모순을 심화시키며, 미래 양극화를 예고함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며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러한 모순 속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서울의 도시이미지는 결국 '외판방'이라는 도시 소외에 다다른다. 「외판방」의 배경이 되는 도시공간은 개인의 삶의 터전이자 시대적 지향점이었던 근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주요어 : 1970~80년대 서울, 근대화, 도시이미지, 도시 소외, 심상지리, 신경숙, 외판방

Abstract : Human beings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space and construct Sense of Place and Placeness throughout their lives. The autobiographical novel 「The Solitary Room」 depicts a four-year period in the life of sixteen-year-old Shin Kyung-sook, who relocated to Seoul. This study examines the mental imagery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urban spaces as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author's daily movements and the spatial trajectories. The author's residential space, the 'Beoljip', was an unauthorized building that lacked minimum living standards and housing rights and was perceived not as a home but as temporary lodging and a space of othering. The factory, the author's labor space was a mechanized environment that normalized the division of labor and codification based on production speed, where the 'Female Worker No. 1 on Line A' suffered from restricted social relationships. While the Special Industrial Class provided a platform for a girl nurturing her literary dreams, it also served as an instrumental space in order to attain capitalism and economic development at the expense of rural youth. Furthermore, everyday spaces, such as markets and alleys were urban environments in which a teenage girl endured a grueling life under patriarchal gender norms. Seoul in the 1970s and 1980s was a metropolis of inherent

*국립군산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e & Building Engineeri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sspak@kunsan.ac.kr)

contradictions. Through the binary opposition between her hometown, Jeongeup and Seoul; representing rural vs. urban, premodern vs. modern, and communal solidarity vs. anonymous individuals, the contradictions of the era were intensified, foreshadowing future polarization. Simultaneously, this environment provided the momentum for her to form subjectivity and growth. Ultimately, the urban image of Seoul converges on the 'Solitary Room,' symbolizing urban alienation. The urban spaces in the novel provide a crucial point of entry for understanding modernization, which served as both the foundation of individual life and the dominant goal of the respective era.

Key Words : Seoul in the 1970s and 80s, Modernization, Urban image, Urban alienation, Imaginative geography, Kyung-sook Shin, The Solitary Room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학 속 공간은 인물, 사건과 함께 작품 구성의 기본요소이다. 공간은 소설의 배경으로서 인물의 서사가 전개되는 장소이자 소설의 주제를 강화하므로, 공간의 설정은 작가의식이 집결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리적 존재인 인간은 필연적으로 공간을 점유하고 일상을 영위한다. 인간은 자연공간 건조공간으로 대별되는 자신을 둘러싼 공간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행동, 심리, 정서적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2025년 10월 신경숙의 소설 「외판방」¹⁾이 30주년을 맞아 개정 출간되었다. 「외판방」은 작가 신경숙이 열여섯에서 스무 살이 되기까지 4년 남짓한 기간 서울살이를 토대로 90년대에 집필한 자전적 소설²⁾이다. 자전적 사실성과 소설의 허구성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글쓰기의 동력으로 삼아 작가 자신이 여공으로 살았던 한 시대의 진실에 다가간 역작으로³⁾ 한국 소설의 새 지평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판방」은 거대 담론의 자장에서 벗어나 개인의 내면과 일상의 미세한 삶의 곁에 대한 탐구로 관심을 옮겨간 90년대 소설의 경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후로(김영찬, 2002) 인식되며 국내외에서⁴⁾ 주목받았다. 「외판방」은 인물과 주제에 집중해 페미니즘 소설, 노동소설 또는 성장소설, 배경을 중심에 둔 도시소설, 서사의 전개에 따라 메타소설이자 자전 소설, 작가의 시선과 문제를 더해 사실주의와 모더니즘 소설 등으로 분류되며 문학비평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문학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외판방」의 해석을 다양한 관점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경숙의 자전적 소설인 「외판방」을 대상으로 도시공간적 측면에서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된 당시 서울의 도시공간 변화와 경관적 특징을 자료를 통해 실증 및 분석하고, 심상지리적 측면에서 작가의 주제적 도시공간 인식을 확대해 시대의 도시이미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연구방법

출간 30주년 기념 개정판 「외판방」을 기준으로 삼는다. 작품에서 작가가 경험을 토대로 서술한 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의 산업화 및 도시화가 정점에 도달했던 1978년부터 1981년까지 4년 동안의 시기에 집중한다. 작품 속 도시인으로서 작가의 삶을 담은 구체적 도시공간과 도시풍경으로부터 주요 공간을 선정해 그에 대해 서술한 원문을 텍스트로 추출하고, 텍스트에 도시적 관점과 심상지리적 관점을 병행 적용해서 연구를 진행한다.

도시공간적 측면에서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의 항공사진, 당시 지도를 비롯해 구로공단 및 가리봉동 일원을 다룬 기록물 등 자료와 선행연구 등 문헌 고찰을 토대로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변화를 정리하고, 현실을 반영한 도시공간의 문제를 이해한다. 심상지리적 접근에 있어서 투안과 렐프 등이 정의한 장소에 대한 개념을 기반으로 세부적 탐구를 진행한다. 도시 일상에서 형성된 개인적 공간 경험과 장소와의 관계, 작가의 내면적 고뇌와 기억이 도시공간에 부여하는 의미, 그리고 작가의 심상이 도시이미지로 표출되는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1970~80년대 서울의 도시이미지를 도출하고, 시대적 도시문제를 조망한다.

II. 문학작품과 도시공간

1. 도시이미지와 심상지리

도시공간은 고유한 이미지와 장소성을 지닌다. 도시이미지(Urban Image; City Image)는 대중이 그 도시를 방문하거나 연상할 때 떠올리는 주관적 인식을 의미하며, 도시아이덴티티(Urban Identity; City Identity)는 공간·역사·문화·경관 등 도시 고유의 특성으로 타 도시와 차별화되는 정체성을 일컫는다. 도시이미지와 도시아이덴티티는 방향성을 달리 한 항등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간을 주제로 한 디자인마케팅과 브랜딩 등에서 활용하는 개념으로 심상지리와 밀접하다.

심상지리(Imaginative Geography)는 1970년대 후반 사이드(E. W. Said)가 그의 저서「오리엔탈리즘: Orientalism」에서 최초로 주창하고 발전시킨 현대 지리학의 한 축이다. 심상지리는 주체가 상상하는 특정 공간이 환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관념, 장소적 의미를 중심으로 공간을 이해하려는 접근 방식이자 주체의 지리적 인식을 의미한다. 문학영역에서 논의하는 문학지리부터 인간의 주관적 경험, 감정, 기억, 문화적 해석을 강조하는 인문주의 지리학이나 공간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의미와 그 변화과정에 주목하는 인본주의 지리학과 궤를 같이한다. 여기서 공간은 단순한 3차원의 물리적 실체 너머 인간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에 의해 장소화된다.

공간을 특정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장소로 다루는 심상지리의 기본적인 전개 방식은 투안(Yi-Fu Tuan)과 렐프(E. Relph)가 주장하는 장소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투안에 따르면, 장소(Place)보다 추상적인 공간(Space)은 개인의 인식과 가치 부여를 통해서 장소가 되며, 장소는 가치를 느끼는 중심이자 인간의 행동의 결절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렐프는 장소를 물리적 환경(Physical Setting), 인간의 활동(Human Behavior), 의미(Meaning)가 변증법적 상호교환을 통해서 가치를 생산하는 곳으로 바라보고, 장소성(Placeness, Sense of Place),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 장소애착(Place Attachment) 등 장소 관련 개념을 구체화했다.⁵⁾

그러므로, 「외판방」에서 작가 신경숙의 일상생활과 공간 경험을 바탕으로 장소기억과 도시공간의 특성을 정리하고, 작가의 의식에 나타나는 도시에 대한 직관적인 표상인 도시이미지를 심상지리로 이해함으로써 개인의 심상과 장소성 구축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2. 도시화와 산업화의 표상, 구로공단

소설 「외판방」의 주요 공간 배경은 서울살이 초기 작가 신경숙이 살았던 구로공단 일원이다. 1970년대 말 전성기의 구로공단은 근대 한국 산업화 및 도시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회적 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정부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자립경제 기반 구축과



그림 1. 구로공단과 가리봉동 일원(좌: 1981년 지형도, 우: 2026년 위성사진)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아카이브 홈페이지; 국토정보플랫폼 홈페이지.

산업구조 근대화를 위한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 추진에⁶⁾ 박차를 가했다. 1964년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 조성법」을 제정하고 서울 구로동 일대에 일명 ‘구로공단’이라고 불리는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했다. 1965년부터 1973년에 걸쳐 제1~3단지에 이르는 세 개의 단지가 총 1,982,000m² 규모로 단계적으로 자리잡으며, 제조업 기반 경공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농지가 대부분이었던 당시 서울의 변두리 구로동은 평탄한 지형, 풍부한 노동력 확보, 인천항 및 영등포역과 인접한 교통 및 물류동선, 안양천과 도림천으로부터 공업용수 공급 등 산업입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1969년 제1, 2단지 중심 공단의 가동 초기에는 노동집약적인 섬유 및 봉제산업이 주력 업종이었고, 1970년대 중반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작가 신경숙이 일했던 동남전기⁷⁾와 같은 전기·전자업과 기계·석유화학 등이 공단의 대표 수출업종이 되었다. 1971년 준공 4년 만에 국가 전체 수출의 10% 수준에 이르는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며 한국 수출산업의 전진기지로 성장한 구로공단은 인근 부평 및 주안까지 그 세를 확장했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또한, 구로공단의 성공은 산업단지 개발과 조성이 지방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1978년 11

만 명을 상회하는 노동자 수와 1980년대 270여 개 입주업체 기록으로⁸⁾ 전성기 구로공단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정부는 구로공단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1996년 7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정보 및 지식 기반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했다. 이런 변화에 따라 2000년 구로공단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개칭되었다. 현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는 제조업과 첨단지식산업 등 신·구 산업이 공존하며, 기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2009년부터 노후산단 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로공단을 행정동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1단지는 영등포구 구로동이었고, 과거 가리봉동은 1단지의 배후지이자 제2~3단지가 위치한 공단지역이었다. 분구와 분동을 거쳐 구로공단은 현재 구로구 구로동과 가리봉동, 금천구 가산동에 속하며, 시흥대로,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에 인접해 경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공단의 중심인 가리봉동은 직주근접(職住近接) 원칙 하 효율적인 생산시설의 운영을 위한 고밀도 주거지, 가리봉시장 중심상권 등 배후지원시설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1992년 한중수교와 산업연수생제도 실시에 따른 대규모

표 1. 구로공단의 주요 연혁

시기	년도	주요 연혁
1960	준비기	1963년 3월7일 수출산업촉진위원회 설치
		1964년 9월14일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 조성법」 제정 및 공포 관보, 제3841호
	조성기	1965년 3월12일 제1단지 착공
		1967년 4월1일 제1단지 준공 452,647m ² (137,000평)
		1968년 6월30일 제2단지 준공 395,777m ² (119,000평)
		1968년 9월9일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 개최 유현목의 1969년 작 ‘수학여행’에 등장
		1971년 수출 1억 달러 달성 한국 총수출액의 10% 차지
1970 발전기	발전기	1973년 11월24일 제3단지 준공 1,133,128m ² (344,000평)
		1974년 8월15일 지하철 1호선 개통 가리봉역(현 가산디지털단지역) 위치
		1984년 5월22일 지하철 2호선 개통 구로공단역(현 구로디지털단지역) 위치
		1985년 6월 구로동맹파업 및 노동 연대투쟁 노동운동의 중심지로 부상
1990	전환기	1992년 한중수교 후 조선족 등 외국인노동자 대거 유입
		1996년 6월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법 시행령」 개정
		1997년 1월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설립 및 구로단지첨단화 계획 수립
2000	제도약기	2000년 12월14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명칭 변경
		2009년 노후산단 재생사업 시행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제조업 기반 산업시설의 지방 이전에 따른 쇠퇴기 가리봉동을 외국인 밀집주거지, 다문화 사회 중심지⁹⁾로 변모시키며 현재에 이른다.

「외딴방」속 작가 신경숙의 일터인 동남전기는 공단의 1단지, 주거공간인 집은 전철역이 인접한 가리봉동에 각 위치했다.

3. 작품 속 배경, 구로공단

구로공단과 가리봉동을 배경으로 삼은 다수의 문학작품과 영화가 있다. 저술 및 발표 시점이 아닌 작품 속 시기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그중 1970~80년대를 다룬 문학작품은 1973년 발표한 황석영의 중편 「돼지꿈」은 구로공단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묘사하고 있고, 양귀자의 단편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간다」에서는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한 노동자의 삶을 그리고 있다. 특히,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공간적 배경은 도시 빈민과 공장 노동자들이 살고있는 철거촌이다. 소설 속 지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작가 조세희는 서울 가리봉동과 인천 만석동 일대를 취재해 글을 썼다고 알려져 있다. 작가는 우화적 기법으로 난쟁이 일가로 상징되는 소외 계층과 공장 노동자들의 삶을 파헤치며, 당시 광속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의 허구와 병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작가 신경숙이 일터에서 휴식 시간마다 필사하던 소설로 「외딴방」에 등장하는데, 실제 작가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구로공단 및 가리봉동 배경 작품의 성격 변화도 감지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에는 농촌 공동체의 붕괴, 서울의 인구집중 현상, 산업화 과정에서의 급격한 도시공간 변화와 열악한 일상생활 환경 등을 다루며, 정부주도 개발과 도시권력의 문제에

표 2. 구로공단 및 가리봉동 배경의 주요 작품

구분	시기	작품	
문학	1970년대	황석영, 1973, 「돼지꿈」 황석영, 1974, 잃어버린 순이 조세희, 1978,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신경숙의 「외딴방」과 동일한 시기적 배경을 지님.
	1980년대	박노해, 1984, 가리봉시장 양귀자, 1986,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양귀자, 1987, 「원미동 사람들」 이문열, 1987, 「구로아리랑」 공지영, 1988, 「동트는 새벽」 김한수, 1989, 성장 임성용, 1992, 하늘공장	
	1990년대	김한수, 1990, 봄비 내리는 날 조기조, 1997, 구로동 아리랑	
	2000년대	공선옥, 2005, 가리봉 연가 박찬순, 2006, 가리봉 양꼬치 임선일, 2011, 「가리봉동 북로군정서」 이명량, 2012, 「천사의 세레나데」	
영화	1970년대	김웅천, 1977, 불타는 소녀 임훈순, 2014, 위로공단 (다큐멘터리)	위로공단은 금천예술공장입주자가 시기 창작 결과물임.
	1980년대	박종원, 1989, 구로아리랑 김홍준, 1994, 장미빛 인생 이창동, 1999, 박하사탕	
	1990년대	이창동, 1997, 초록물고기	
	2000년대	임상수, 2001, 눈물 김선민, 2005, 가리베가스 나홍진, 2010, 황해 박훈정, 2013, 신세계 박기용, 2013, 가리봉 (다큐멘터리) 김주환, 2017, 청년경찰 강윤성, 2017, 범죄도시	



그림 2. 구로공단 전경(좌로부터 1970년대, 1980년대, 2010년대)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민국산업단지60년 홈페이지 ; 포브스코리아 홈페이지.

집중했다. 구로동맹파업이 일어난 1980년대 중반부터 문학이나 영화작품은 도시화 및 산업화 과정에서 인간의 소외와 빈부격차, 노동현장의 부조리 등 소재가 주를 이루며, 노동자들이 직접 창작자로서 노동문학이 한 축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2000년대 작품들은 1990년대 이후 대거 유입된 외국인노동자,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 구로공단과 가리봉동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구조 재편과 지역의 쇠퇴를 대체한 디아스포라(Diaspora) 공간으로 상징화하고 동시에 우범지대, 위험지역이라는 편견을 앞세우고 있다. 즉, 이주민의 고단한 노동과 차별, 그리고 다문화 공동체 서사가 예술작품의 주제와 소재로 등장한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라는 새 명칭이나 재도약을 위한 사업과는 거리감이 있다.

III. 외판방 속 도시공간

문학과 도시공간의 상관성은 도시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내에서 도시화와 도시적 삶의 양식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한원균, 2008). 「외판방」을 통해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급격한 도시공간의 변화와 실체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도시정체성을 파악하고, 이 공간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따른 작가의 의식과 기억으로부터 도시이미지와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작가의 일상동선과 공간 성격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작가의 주거공간인 벌집, 일터였던 생산공간인 공장, 학교·시장·골목길 등 일상생활 공간과 서울의 첫인상을 심어준 사무공간 대우빌딩과 같이 네 개로 구분해 분석한다.

소설 「외판방」은 십 대 후반을 되짚어보는 서울 배경의 과거 서사와 1995년 섬 제주도에서 작가의 저술 시점이 교차하는 구도이다. 기억 속 외판방과 현재의 섬, 공간이 지닌 고립성이 작품의 기저에 깔려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는 섬이다. ... 느닷없이, 한번도 와본 적이 없는 이곳에 와서, 나는 열여섯의 나를 생각한다. 열여섯의 내가 있다. p11

나는 침묵으로 내 소녀 시절을 목살해 버렸다. **스스로 사랑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으므로 나는 열다섯에서 갑자기**

스물이 되어야 했다. ... 그 시간들은 내게 늘 완전히 드러난 햇빛이나 바닥을 완전히 숨긴 **우물 같은 공동**으로 남았다. p557

1. 주거공간, 벌집

소설 속 작가는 구로공단 1단지에 위치한 동남전기에서 일하며, 3단지 가리봉역 근처 외판방에서 큰오빠, 외사촌과 함께 살아간다. 이후 셋째오빠의 대학 진학으로 네 명이 한방에서 지낸다.

수원행 전철이 통과하는 전철역이 그 동네의 시작이다. 전철역 앞에서부터 길은 세 갈래로 나뉜다. **길은 세 갈래였어도 어느 길로 접어들나 공단과 연결되었다.** 그 집으로 통하는 좌측 길만 사진관과 보리밭다방 사이로 골목이 또 있었고, 그 골목을 사이에 두고 집들이 들어서 있었다. 그러나 집들이 있는 그 골목을 벗어나 시장으로 통하는 육교를 건너고 나면 그 시장 끝도 역시 공단이었다. 서른일곱 개의 방이 있던 그 집, 미로 속에 놓인 방들. 계단을 타고 구불구불 들어가 **이젠 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곳에** 작은 부엌이 딸린 방이 또 있던 삼층 붉은 벽돌집. ... 거기였다. 서른일곱 개의 방 중의 하나, 우리들의 외판방. ... 왜 내게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방을 생각하면 **한없이 외젔다는 생각, 외로운 곳에, 우리들, 거기서 외따로이 살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인지.** pp54-55

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삼 미터 앞, 위에서 보면 시멘트로 덮인 마당 중앙에 수돗가가 있었다. 계단 왼편엔 황색 나무문 두 개. 그 나무문의 유리창엔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먼지 속에 흰 페인트 글씨로 男·女가 쓰여 있었다. 아침이면 서로 멍쩍어하며, 전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만전 피우며, 그 집 사람들은 수돗가 근처에서 서성거렸다. p55

소설의 도입부에서 외판방은 자세히 묘사되어 집의 객략적인 위치와 규모 등을 유추할 수 있다. 작가의 외판방이 서른일곱개 방 중 하나였던 것처럼, 한 건물에 주로 10~40가구, 가구당 평균 동거인수 3.2인이 거주하는 공동주거로(김영기, 1983) 공단의 배후주거지인 가리봉동과 구로3동 일대에 주로 분포했다. 당시 대표적인 도시주거유형으로, 그림 3의 도면 및 그림 4의 사진과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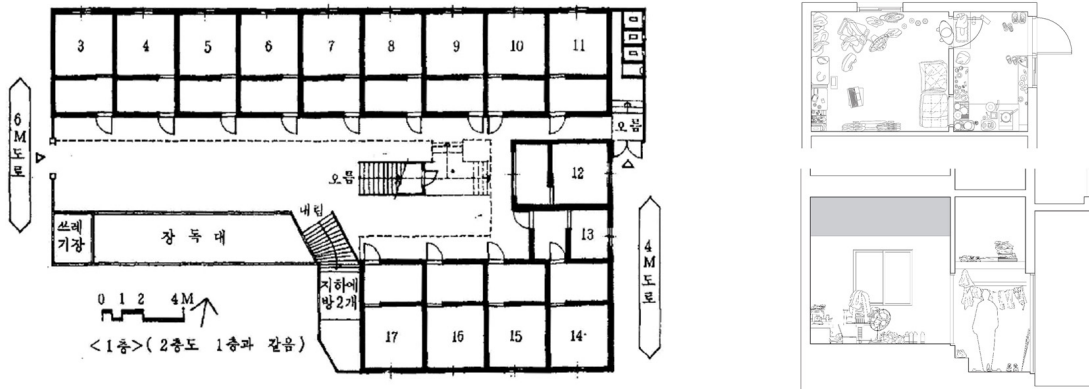


그림 3. 벌집 도면(좌: 벌집 평면도, 우: 벌집 단위세대 평면도 및 단면도)

출처 : 김영기, 1983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아카이브 홈페이지.

가구별 방과 간이부엌이 달린 최소한의 구조로 3평 내외 단칸방이 군집한 집을 닭장집 또는 벌집이라고 불렀다. 실외공간 마당에는 공동의 수도와 화장실이 위치했고, 개별 가구로 향하는 통로의 역할도 수행했다. 다수의 동거인에게 주거 기능 세분화를 허용하지 않는 방은 수면·휴식·학습·식사·접객 등 다용도의 공간이었고, 부엌 역시 취사·세면·세탁까지 수용했다. 대개 저렴한 간이가 구인 비키니옷장¹⁰⁾과 책상이 전부인 단출한 살림살이였다. 그림 3의 단면도와 같이 부엌과 방의 바닥 단차로 수납을 돕는 다락이 있었는데, 심지어 수면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난방방식은 연탄온돌이 주를 이뤘고, 새마을보일러가 제한적으로 도입된 시기였다. 취사는 계절에 따라 난방과 겸하거나 석유곤로의 사용이 일반적이었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생을 마감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들의 외판방에 법학도가 된 셋째오빠가 같이 살기 시작한다. 책상 하나와 비키니옷장 하나를 머리맡에 두고 요 두 개를 깔고 **넋이 나란히 눕고 나면 더 움직일 곳이 없는** 우리들의 외판방엔 언제나 밤상이 차려져 있다. 외사촌과 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후 우리들은 저녁밥을 같이 먹지 못한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외사촌이나 나나 둘 중의 하나는 연탄집계를 들고 골목의 가게로 간다. 그곳에선 반쯤 불붙은 연탄을 생연탄의 두 배를 받고 판다. 연탄에 불붙여 주는 가게는 밤이 깊으면 연탄집계를 든 사람들이 줄 서 있다.

pp162-163



그림 4. 가리봉동 벌집 전경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아카이브 홈페이지.

「외판방」의 공간 묘사와 시대적 생활상을 다룬 작가의 정교한 시선은 놀랍지만, 건축 및 도시적 관점에서 소설은 열악한 도시노동자의 주거공간 수준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벌집은 주거학에서 제시한 최소 거주면적¹¹⁾ 미확보와 다인 거주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 심각한 도시 주거 문제를 초래했다. 벌집은 헤르린(U. Herlyn)과 볼노브(O. F. Bollnow)가 주택을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자 머물 수 있는 고정적 장소라고¹²⁾ 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별집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임시 방편으로 조성된 기형적 공간일 뿐이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기준 적용 시, 별집은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¹³⁾ 또는 다중주택¹⁴⁾에 가깝지만, 1999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에 정식으로 도입될 때까지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주거유형으로 인식되며 건설부 지침으로만 유지되었다. 작가가 거주했던 시기의 별집은 위법적 상황에 놓인 불법건축물이었다. 뒤늦게 주택난과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가 다가구주택을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인정하고 법제화했기 때문이다. 3층 이하, 동별 면적 660m² 이하, 19세대 이하의 거주 등 세부 요건을 마련해 주택 보급과 주거기준을 향상시켰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보편적 다가구 거주현상 양성화와 도시의 소규모 택지 활용으로 주택건설 촉진에 기여했으나, 건축 및 도시적 차원에서 사후 조치이자 물량 위주 주택공급을 위해 탄생한 주거유형임을 부인할 수 없다.

별집 거주자의 경제적 조건은 작품 속 주인집 여자를 설명한 텍스트에서 드러난 것처럼 보충부 월세이다. 소득이 낮은 임차가구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고액의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자 선택하는 방식이다. 주거공간의 월세는 방세에 전기세·수도세·오물세·쓰레기수거비 등 세금이라 불리던 각종 비용을 추가해 구성된다. 1980년대 조사에 따르면, 공단 노동자가 밀집한 가리봉동 일대의 단위면적 당 월세는 서울 타지역에 비해 높다고 보고되었다. 고밀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수치화해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포동포동한 손가락에 자수정 반지를 낀 중년의 여자를 보면, 서른일곱 개의 방을 갖고 있던 그 집 주인여자가 떠오른다. 그 여자는 그곳에 살지 않았다. 그 여자를 볼 수 있는 날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낀 말일 근처의 한 사흘가량이다. 방세와 세금을 받기 위해 들른다. 골목에 검은 자가용이 세워져 있는 것이 여자가 왔다는 신호다. p333

관계의 단절이 일상화된 별집에서 옥상은 유일한 외부와의 소통 창구이자 공유공간이다. 집 주변 풍경을 바라보거나 빨래를 건조시키는 생활공간이고, 작가의 공단시절을 지배하는 기억 속 희재 언니와 답소를 나누는 교류

공간이다. 옥상에서의 대화 중 희재 언니의 말은 그녀의 암울한 미래와 작가를 억압하는 트라우마를 예측하게 만드는 단서이자 도시노동자의 삶에 작용하는 원초적 소외감으로 동질성을 느끼는 계기가 된다. 작가의 기억 속 별집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죽음으로써 벗어나거나 뛰어나왔다는 표현처럼 벗어나고픈 공간이었다.

이불 흘청을 다 빨아 고무장갑을 낀 채로 나도 옥상으로 갔을 때, 그녀는 빨랫줄 한켠에 교복과 양말과 속옷과 손수건 등을 널어놓고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햇볕을 쬔고 있었다. … 희재 언니 곁으로 다가가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전철역 건너편 어느 공장에서 시커먼 연기가 구름처럼 솟아오르고 있었다. “굉장하지.” … **“이 집은 좋아 …… 누가 죽어도 모를 거야.”** pp189-190

외판방으로 걸어들어난 건 열여섯이었고, **그곳에서 뛰어 나온 건 열아홉이었다.** p83

별집은 구로공단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용산으로 이주한 외사촌도 별집을 벗어나지 못했고, 병문안 차 찾아가던 동료 미스리도 하나같이 별집에 살고 있다. 미스리의 별집은 1평 미만 부엌도 없이 복도가 취사공간이자 각자의 외판방에 이르는 통로가 된다. 이처럼 별집은 도시노동자와 하층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실체로 압축적 경제성장의 그늘을 반증하는 공간이다.

독산동의 비탈엔 아직 눈이 털 녹았다. … 비탈을 오른 만큼 다시 내리막길을 타니 연동들이 죽 세워진 골목이 나온다. … 열린 대문을 밀고 들어가니 방문 앞에 101, 102가 써져 있다. 방은 열 개쯤 되고 복도식으로 되어 있다. 복도에 곤로들이 나와 있다. … 부엌을 못 가진 살림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다. p464

소설 전반에 걸친 작가의 심상에, 외판방은 냉기가 감도는 돌아가지 못하는 부재의 공간이자 결코 머물 수 없는 임시 거주공간에 그친다. 첫째, 외판방은 ‘한없이 외진’ 지리적 실체의 공간이다. 1970년대 말 지방에서 상경한 청년층의 시대적 전형인 신경숙에게 외판방이 위치한 구로공단과 가리봉동은 근대화와 산업화의 한복판이자 대도시 서울 전체였다. 하지만, 진정한 도시민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서울의 도시공간은 섬 같은 변방, 경제적 장소에

그친다. 둘째, 외판방은 ‘외로운 곳’으로 기억되는 도시(적) 소외의 공간이다. 도시 소외는 이주 노동자이자 경제인으로서 불안하거나 임시적인 장소 속에 놓여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원초적 정서이다. 결국 작가는 서울을 향한 기대감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 사이, 집을 잃고 자본주의 위기에 놓여있다. 신경숙에게 외판방은 도시에서의 삶을 위해 한시적으로 머무르는 공간일 뿐 장소에 대한 애착이 부재한 장소이다. 일반적으로 집을 실존적 내부성(Existential Insideness)¹⁵⁾을 지닌 장소로 정의하는 랐프와 달리 작가는 자신의 주거공간에 대해 정서적 유대감 없는 이방인의 장소로 묘사했고, 이는 곧 공간과 관계의 단절 상태인 무장소성(Placelessness)을 의미한다. 결국 외판방으로 기억되는 주거공간 별집은 도시 속 실존적 외부성(Existential Outsideness)의 장소이자 도시 소외(Urban Alienation)¹⁶⁾의 상징이다.

2. 생산공간, 공장

압축적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던 발전주의는 생산의 주체이자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의 주체로서 지방 청년층을 서울로 유입시켰다. 이촌향도(離村向都)의 행렬은 서울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급속한 도시화로 이어졌다. 신경숙이 상경해서 구로공단에서 일했던 1970~80년대는 한국 도시화의 가속화 단계이다. 그림 5의 그래프와 같이 도시화율¹⁷⁾은 1970년 40.7%에서 1990년 73.8%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완만해지며, 정체기에 접어든다. 도시화로 서울에 각종 사회적 기능과 시설이

집중되었고 시가지가 연속되는 공간유착 현상으로 광역 도시화 지역인 수도권을 형성하며, 지역 간 불균형을 예고했다. 또한, 도시화는 과도한 인구 유입과 산업의 집중으로 인한 환경오염, 주택부족, 교통체증, 교육문제, 도시 빈민층의 출현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1970~80년대 구로공단은 도시화와 연동된 산업화의 표상으로 지방 청년층의 일차적인 종착지가 되었다. 제조업 공장과 굴뚝이 밀집한 구로공단은 대도시 서울의 특정 지역을 잠식하며 산업경관을 만들어냈다. 대규모 산업경관은 1990년대 본격화된 공장의 지방 및 해외 이전 등으로 지식산업 단지로 전환하며 새로운 지역정체성 정립과 함께 도시재생과 재개발의 잠재력을 키워왔다.

당시 공장은 지방 청년층의 유입으로 산업화를 지향하는 생산공간이다. 1978년 구로공단의 전체 근로자는 11만 4천여 명에 이르렀는데, 1967년 공단 가동 초기 2천 6백여 명에 불과했던 고용 규모가¹⁸⁾ 10년 동안 43배나 증가한 것이다. 한때 6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공장 인력 대다수를¹⁹⁾ 차지했던 여성노동자들은 경제성장의 주축이었음에도, ‘여공’²⁰⁾이라는 기표를 통해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폭력적으로 재현되어왔다(서은주, 2022). 신경숙은 자발적으로 정읍 과교리 가운데집 딸에서 동남전기 산업역군으로 변모했음에도, 1970년대 말 구로공단 ‘여공’의 도시공간은 자연과의 단절로 고통받고 도시 소외가 지배하는 심상으로 자리잡는다.

자연 속에서 중간 다리도 없이 갑자기 공장 앞으로 걸어가야 했던 나와, 거기에서 보았던 내 나이 또래, 혹은 대어
 첫살 많은 여성들 앞에 놓인 삶의 질곡들과 **자연의 숨결이 끊어진 이 도시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
 고 있었다. p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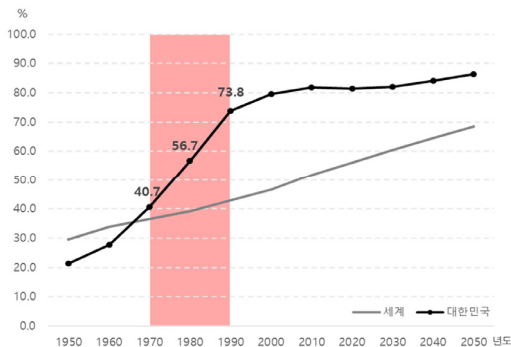


그림 5. 대한민국 도시화율

출처 : 국가통계포털 KOSIS + UN 자료 기준 그래프 작성

공장건축은 생산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스케일과 기능성을 우선시하며, 건축적 조형성이나 인간적 배려는 배제된 공간이다. 또한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지붕 트러스, 벽돌이나 도장 마감 외장이 주를 이뤘다. 소설 속 공장에 대한 묘사에서 분업화된 생산체제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삶을 기호화, 구조화하는 것과 동일하다. 공장에서 신경숙은 한 개인이 아닌 스테레오와-A라인-1번일 뿐이다. 그림 6과 같이 개인의 삶보다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전자제품 생산에 충실한 기능적인 배치와 공정대로 정해진 자리에서 반복적 노동을 하며 컨베이어벨트를



그림 6. 전자공장에서 부품조립 중인 근로자들
출처 : 가리봉오거리 전시도록, 원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따라 연결되는 관계 속 부품 또는 소모품 같은 존재가 됨을 의미한다.

회사는 넓다. 종업원이 천여 명은 되는 것 같다. 회사 정문에서 보면 TT형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다. ... 외사촌과 나는 우리의 희망대로 헤어지지 않고 스테레오과로 분류된다. 스테레오과의 생산부 라인은 세 개다. ... 우리는 A라인에 배정된다. 우리가 손을 잡고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컨베이어가 돌아간다. 나는 A라인의 1번이 된다. 외사촌은 2번이다.**

p70

물질적 차원의 생산성을 앞세운 「외판방」 속 여공 신경숙의 일상은 1970~80년대 「공장체제」²¹⁾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장체제」는 「공장」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주거(별집과 외판방)-교육(산업체특별학급)-경제활동(공장)을(재)생산하는 경제, 정치, 사회적 연결망이 개인의 삶을 구조화하는 것이다. 이 체제의 작동을 위해 산업역군 담론, 가족부양을 위해 헌신하는 효녀 담론 등이 제공되기도 했다(박숙자, 2023). 실제 1980년 구로공단지역 여성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공의 취업동기는 가계 부양 28.9% >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19.2% > 결혼비용 마련 18.5% > 형제의 학비 지원 13.1%로²²⁾ 나타나 이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공장체제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의 불완전한 결합체이기도 하다.

「외판방」의 생산공간, 공장은 여공의 집단 일터로 한국 근대 산업화를 표출하는 도시풍경을 이룬다. 생산 극대화를 위한 기계화와 표준화를 앞세운 공간 배치, 컨베이어벨트 속도에 순응하는 획일화된 분위기, 금지된 관계

형성과 비인간적 스케일의 타자화된 공간구조의 공장은 주거공간 벌집과 마찬가지로 도시 소외와 고통을 가중시키는 공간이미지로 읽힌다. 「외판방」을 한국 여공문학의 맥락에서 연구한 배러클러프(R. Barraclough)는 여공을 산업화의 외상을 지닌 존재로 다루었지만, 다른 한편 어려운 여건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여공들의 문화에 주목했다. 이러한 문화에 부합하는 주체로서 여공 신경숙은 자기 주변을 지배하는 공장이라는 도시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작가의 꿈을 키우며 성장했다.

3. 일상생활공간, 산업체특별학급과 시장, 골목길

작가 신경숙의 서울행은 고향에서 이어가지 못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이유가 크게 작용했고, 큰오빠의 조언대로 그녀와 외사촌이 주경야독을 실현한 곳은 영등포역고 산업체특별학급이었다. 노조탈퇴를 전제로 진학한 학교는 공장을 떠나 최홍이 선생님을 만나고, 그가 건네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으며 작가의 꿈을 구체화하던 공간이다.

일이 힘들 거야. ... 그렇지만 그곳에서 연수를 받고 공단으로 취직을 하면 학교를 갈 수 있을 거다. 산업체 특별학급이 생겼으니까.

p37

1979년의 오후 다섯시. 나는 그 오후 다섯시를 사랑했다. 그 시간이면 이제 컨베이어 앞을 떠나도 되므로. ... 그 오후 다섯시에 컨베이어 앞을 떠나기 위해 나머지 시간 동안 외사촌과 나는 병어리가 되어 피브이시에 나사 박는 일에 몰두한다. ... 우리가 학교에 가고 없는 동안에도 생산이 끊기지 않도록 3번 자리 옆에 ... 오후 다섯시가 되기 전에 충분히 쌓아놓아야 했으므로.

pp169-170

1976년 교육법²³⁾ 개정에 따른 산업체특별학급은 중·고등학교 진학 대신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청소년을 위해 1977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산업체 부설학교와 함께 일반학교 부설로 야간 운영했던 특별학급은 학력 인정 근로청소년 교육기관으로, 공장 노동자들에게 학업과 경제활동 병행의 기회를 제공했다. 산업체특별학급은 산업체에게 각종 지원과 세제 혜택, 근로자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는 장치로 작동했고, 교육의



그림 7. 박정희대통령 산업체특별학급 시찰, 1977년
출처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보편화와 노동자의 권리 향상 등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산업체특별학급은 제도적 수혜와 신분 상승 욕망을 위한 생존의 공간인 동시에 다른 한편, 여성·노동자·학생·청소년이라는 다중적 정체성을 가진 개인을 일상적 긴장과 고통을 강요하는 시초의 공간이다.

A라인 1번과 2번인 외사촌과 나는 1979년 3월 어느 날 오후 다섯시에 회사 앞에서 버스를 타고 공단 입구를 벗어나 신길동의 영등포여고에 간다. 교문을 들어서자 비탈의 끝 화단에 하얀 동상이 운동장 쪽을 보고 서 있다. 가까이 다가가 동상을 쳐다본다. 단발머리에 하복을 입은 소녀 동상이다. 나는 일학년 사반, 외사촌은 일학년 삼반.

p149

산업체특별학급의 학생이 학교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해 시간대를 달리한 공간 공유이다. 최근 학교 내 교사 및 유허 부지를 활용한 돌봄교실·문화시설·주차장 등 학교시설의 복합화,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공간전략과도 상통한다. 다만, 주 교육공간인 교실을 대상으로 했던 산업체특별학급과 차이가 있다. 농촌의 희생을 전제로 삼은 저임금정책과 국민들의 향학열을 사회적 길들이기 및 경제적 착취에 이용하는 교육제도와 사회구조가 드러나는(백낙청, 1997) 산업체특별학급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원동력이자 일상의 갈등을 초래하는 모순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작가가 겪은 고단한 삶의 심상은 집-공장-학교를 오가는 일상공간으로 이어진다. 귀가 전 국거리와 찬거



그림 8. 가리봉동 골목길 풍경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아카이브 홈페이지.

리를 사러 들르는 시장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싱싱한 물건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공간이 아니라, 쓸쓸한 파장의 풍경이다.

1공단에 있는 회사 근무를 마치고 3공단 전철역 앞의 우리들의 외판방으로 걸어오는 길목엔 시장이 있다. ...우리들은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시장에 들른다. 그 러려면 버스를 한 정거장 전에 내려야 한다. ... 파장 무렵의 시장통은 을씨년스럽다. 곳곳에 쓰레기들이 쌓여있다.

p160

외판방으로 들어가기 전, 집에서 나오며 처음 마주치는 도시의 공공공간 골목길을 작가 신경숙은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비포장 골목길은 좁고 햇빛이 들지 않는 웅덩, 생활의 냄새가 뒤섞인 환경, 그곳을 비틀거리며 오가는 사람들, 문을 잠그지 못하고 열려둔 채 사는 외판방이 모여있는 집까지, 불행과 부정적인 것들의 집합체이다. 작가를 비롯해 그 골목길에서 셋방살이하던 사람들이 체념하지도 벗어나지도 못하고 견뎌내는 공간인 골목길을 부정하고 떠난 유일한 사람은 오패와 헤어진 여자였다.

눈이 잘 녹지 않던 그 골목. 내린 눈이 하룻밤만 되면 그대로 빙판이 되었던 골목. 세상은 많은 골목을 숨기고 있다. 불빛 없는 창. 차가운 전신주. 깨진 벽돌. 담장 안의 미로 같은 작은 방들. 하수구 냄새. 호떡 굽는 냄새. 노출된 여관의 긴 복도... 석유공로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냄새. 부스럼이 난 술취한 어린 남자 공원이 비틀거리며 걸어간다. 슬픈 고성방가 속에 스미는 삶의 불안.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아 잠글 수 없는 대문들. 쌓인 연탄재. 얼어붙은 쓰레기. ... 큰오빠의 여자는 그 골목이 싫었을 것이다.

p283

…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그 골목에서 간이숙박소 같은 삶을 살았다 해도, 중요한 것은 살아 있다는 것이야.**

p288

「외판방」속 일상생활공간인 학교, 시장, 골목길은 소설의 주요 배경인 외판방과 공장, 그 사이를 연결하며 존재한다. 일련의 도시공간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어두운 뒷면처럼 도시 소외를 심화시키지만, 정주하지 못하는 현실 극복의 서사로 이끄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4. 사무공간, 대우빌딩

작가 신경숙에게 대우빌딩은 대도시 서울의 첫인상이다. 그림 9의 단면과 같이 정읍에서 밤기차로 올라온 서울, 새벽 무렵 서울역 광장에서 마친 잠송같은 건물이 바로 대우빌딩이었다. 큰오빠가 학업을 마치고 임시직에서 벗어나 찾은 첫 직장도 대우빌딩에 위치했기에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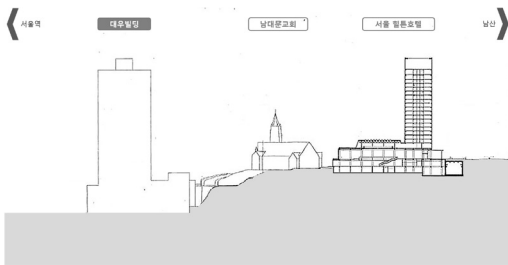


그림 9. 주변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우빌딩 단면

출처 : 건축신문, 원출처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도면파일을 토대로 연구자 작성



그림 10. 서울역 앞 대우빌딩 전경, 1976년

출처 : e영상역사관 정부기록사진집, 홈페이지.

열여섯의 나, 엄마가 그해 마지막 모내기를 마친 날, 밤기차를 타고 쇠스랑을 삼킨 우물이 있는 집을 떠난다.

p26

그날 새벽에 봤던 대우빌딩을 잊지 못한다. 내가 세상에 나와 그때까지 봤던 것 중의 제일 높은 것, 그땐 빌딩 이름이 대우라는 걸 알지 못했다. 엄마를 따라 새벽 서울역 광장을 걸어 나오다가 열여섯의 나, 몇 걸음 앞서 걸어가는 엄마를 향해 부리나케 달려가 엄마의 옆구리에 찰싹 달라 붙는다. … 거대한 짐승으로 보이는 저만큼의 대우빌딩이 성큼성큼 걸어와서 엄마와 외사촌과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다. … 엄마는 겁먹고 있는 내게 저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암것도 아니란다. 그냥 철근일 뿐이지.” 엄마가 그렇게 말해도 도시에 처음 발을 디딘 열여섯의 나, **여명 속 거대한 짐승같은 대우빌딩을, 새벽인데도 벌써 휘황하게 켜진 불빛들을, 어딘가를 향해 질주하는 자동차들을, 두려움에 찬 눈길로 쳐다본다.**

p36

고도 경제성장기인 1970~80년대에 재벌 중심의 한국적 산업구조가 확립되면서, 강북 서울 도심에 대형 사무과 업무시설의 건설이 활발했다. 대우센터로 불렸던 대우빌딩²⁴⁾은 그림 11과 같이 언론에서 마천루와 고밀도의 대표적인 건물로 지칭되었다. 대우빌딩은 초기부터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골조공사 중이던 교통센터 건물을 대우그룹에서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건립되었다. 건물은 중심코어 배치와 직사각형 기준층 평면의 지상23층/지하2층 규모로, 당시 건축기술을 집약한 결과물이다. 건축계획적으로 대규모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기능적 사무공간으로, 저층부에 금융기관을 유치했고 지하층에 편의시설과 스포츠센터 등을 갖추었다. 반면 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공간적 배려는 부족하다. 도시적 측면에서는 대우빌딩을 향한 비판적 시선이 우세하다. 당시 대규모 업무시설이나 공공건축물과 동일한 설계를 채택했는데, 1층은 도로보다 높게 진입 레벨로 설정해 목적을 가진 출입을 허용했다. 또한, 근대화의 거점인 서울역과 수도 서울의 중심 자연을 연결하는 도시축에 대한 고려 없이 남산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건물이다. 서울역²⁵⁾은 한국철도의 중심으로,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 및 1980년대 본격적인 고속버스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전까지 서울의 관문이었고, 그 앞의 대우빌딩은 서울의 첫인상을 제공했다. 도시화의 정점으로 치닫던 과도기에



그림 11. 일간지에 보도된 대우빌딩(좌: 매일경제 1976년 1월 5일자, 우: 경향신문 1978년 5월 20일자)

출처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홈페이지.

상경한 신경숙에게 서울이라는 도시의 첫인상은 대우빌딩으로 집약된다. 이는 거대한 스케일과 인공건조물로 인한 자연과의 단절이었고, 도시에 대한 동경은 순식간에 도시 소외로 탈바꿈하고 만다.

IV. 외판방의 고향

「외판방」의 고향은 작가 신경숙에게 일관된 삶의 원형이다. 초월적 원천으로 고향의 상징화는 소설의 전개 과정 내내 다루어지며, 「외판방」과 대립적인 위치에 훼손되지 않은 공동체의 모습을 간직한 고향이(허병식, 2013) 자리잡고 있다. 열여섯 나이에 상경한 이후 작가는 줄곧 서울에 살았지만 나고 자란 정읍에 대한 그리움을 놓지 못하기에, 심상지리적 접근으로 고향과 도시의 상대적 이미지 추출이 가능하다.

한국인의 고향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이은숙·신명섭, 2000), 고향은 성장기 거주지, 출생지, 부모의 고향 또는 선산, 그리고 현재 거주지를 대상 공간으로 삼으며, 지리 기반 자연적 요소에 관계 중심 인문적 요소와 감각적 요소를 더해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작가에게 후기 성장기이자 현 거주지인 서울은 결코 고향으로 자리잡지 못한다. 이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 동경과 좌절, 공간

과 인간관계의 변화라는 이항대립적 구도로부터 기인하며, 신경숙이 서울을 대상으로 한 도시이미지 형성에 지배적 영향을 미쳤다.

이산 밑에서 성장했다. 그리고 저들 앞에서, 여름의 폭우와 겨울의 장설 속에서 나를 키웠다. p66

내가 어려동절했던 건 갑자기 도시로 나와서가 아니라, 도시에서 우리들의 위치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제사가 많았던 시골에서의 우리집은 어느 집보다 음식이 풍부했으며, 동네에서 가장 넓은 마당을 가진 가운뎃집이었으며, 장항아리며 닭이며 자전거며 오리가 가장 많은 집이었다. 그런데 도시로 나오니 하층민이다. 이 모순 속에 이미 큰오빠가 놓여있고, 이제 열여섯의 나도 그 모순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p69

「외판방」의 1장은 가난으로 인해 고등학교 진학의 꿈이 좌절된 신경숙이 고향에서 벗어나고자 간간히 쓰는 서사이다. 스스로를 쇠스랑으로 찍어버린 채 무기력한 고향집의 우물안에 가두기보다 큰오빠가 있는 서울을 동경하고 도시로의 이주를 꿈꾸었다. 마침내 작가는 농촌 인구를 도시로 집중시키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동참하며 도시화와 산업화에 뛰어들다. 도시로의 이주는 성공을 추구

하는 욕망과 기대, 즉 생계를 위한 취업과 미래의 계급 상승을 위한 교육의 목적을 수반했다. 고향에서 품었던 작가의 기대와 도시의 현실은 격차가 컸고, 공간과 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겪어야 했다. 공장노동과 산업체특별학급 진학은 고단한 일상으로,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는 별집에 사는 도시하층민으로 전락한 채 압축적 근대화의 모순을 마주하게 된다.

내가 언제 어디에 있으나, **내가 태어나고 자라는 마을과는 반대의 의미로, 그러나 그와 똑같은 비중으로 외판방은 내 안에 살고 있었다.** p82-83

나는 꿈이 필요했다. 내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큰오빠의 가발을 담당하게 빗질하기 위해서, 공장 굴뚝의 연기를 참아낼 수 있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소설은 그렇게 내게로 왔다. p229

이와 같이 도시 소외는 작가의 심상을 대변하며 ‘외판방’이라는 어둡고 부정적인 도시이미지로 연결된다. 표 3과 같이 고향과 도시의 대립적 구도는 자발적 결정에 따라 떠난 고향을 근대화로 인해 상실한 가치의 집합체적 장소이자 회귀 본능을 자극하는 노스텔지어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른 한편, 도시이미지를 극복하고자 소설을 쓰겠다는 작가의 꿈과 다짐은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주변과 스스로를 구별하고 외판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긍정적 동인으로 작용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존재 가치와 주체화가 요구되는 근대사회에서, 작가는 주체적

삶을 모색하며 성장해나간다. 신경숙은 자신에 대한 주체성 확립을 산업화와 도시화과정 속 삶의 태도로 견지한다.

V. 결론 및 함의

인간은 삶의 과정에서 공간과 관계를 맺고, 장소이미지와 장소성을 구축한다. 「외판방」은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한 열여섯의 나, 신경숙이 서울로 상경해 구로공단의 여공으로 지냈던 1978년부터 1981년까지 4년여 기간에 집중한 자전적 소설이다. 인구 이동과 공간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화(Urbanization)와 산업화(Industrialization)는 동반 발생하며 사회 전반의 근대화를 이끄는 핵심적인 과정인데,²⁶⁾ 회상과 고백이 결합한 소설 「외판방」속 한국 사회는 대전환을 추구하던 시기로 압축적 근대화(Modernization)의 한복판에 놓여있었다. 따라서, 문학적 내면화의 결과를 통해서 개인의 삶의 경험과 공간적 실천이 누적된 다층적 의미의 집합체인 대도시 서울에 대한 작가 신경숙의 심상과 도시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다.

작가의 일상동선과 공간 성격에 따라 구분한 도시공간에 드러난 심상과 공간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작가의 주거공간 별집은 구로공단의 배후지역에 분포하는 일반적인 주택이다. 하지만, 별집은 최소 거주면적과 주거권이 확보되지 못한 채 임대수익만을 추구하는 불법건축물이다. 안식을 위한 원형의 공간인 집이 가족과 공유하는 협소한 물리적 실체의 공간인 방으로 전락한 채, 신경숙에게 머물지 못하는 임시숙소로 인식되며 타자화된 공간에 그친다. 일터였던 생산공간, 공장은 기계화된 노동공간으로 생산의 속도에 따른 분업화와 기호화를 당연시한다. 공장에서 이름을 잃어버린 A라인 1번 여공은 사회적 관계를 제한받는다. 학업과 경제활동 병행의 기회를 제공했던 산업체특별학급은 일학년 사반 여학생에게 작가의 꿈을 키워나갔던 교육공간이다. 반면 농촌과 지방 청년층의 희생을 전제로 한 자본주의와 경제발전을 공고히 하는 도구화된 공간임을 간파할 수 없다. 주요 지점 사이 생활공간인 시장과 골목길은 살림을 도맡았던 십 대 소녀의 고단한 일상을 가부장적 젠더 관념 하에 반복하는 도시공간이다. 이렇듯 1970~80년대 서울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중심으로, 개인적 발전주의와 사회의 자본주의 갈등, 도시 이주와 도시 소외 위기와 같은 원초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는 대도시이다.

표 3. 고향과 도시공간의 심상지리적 비교

고향		도시
전북 정읍시 과교동	위치	서울 구로공단·가리봉동
농촌	경제	제조업 기반 산업
산과 들이 펼쳐진 자연	환경	도시적 건조환경
가운뎃집	주거	외판방
온정주의, 가족공동체 연대	관계	익명성 개인, 공장체제 소외
쇠스랑을 삼킨 우물	상징	별집, 가리봉역 공장의 컨베이어벨트
빈곤과 낙후, 정체 공동화된 마을 상실, 노스텔지어 전근대적 이미지	심상	꿈과 기회, 발전 고밀도의 도시 불안, 트라우마 근대적 이미지

도시의 중심 자연축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대한 짐승같은 대우빌딩은 열여섯의 나, 신경숙에게 서울의 첫인상이었다. 쇠스랑을 삼킨 우물이 있는 가운데집으로 그려지는 고향 정음은 노스텔지어의 대상이고, 컨텍스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건물들이 군집한 서울은 영원한 타향이다. 무료한 농촌과 고단한 일상의 도시, 전근대와 근대, 공동체적 연대와 익명의 개인으로 표출되는 이항대립적 구도를 통해서 시대와 공간의 갈등은 만성화되며, 미래 양극화를 예고한다. 도시 이주민의 삶은 막연한 기대와 냉혹한 현실 간 괴리에서 비롯된 고통이지만, 도시공간과 일상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모순과 갈등을 동반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서울의 도시이미지는 결국 「외판방」에 다다른다. 외판방은 도시(적) 소외를 상징한다. 도시 소외는 나와 우리를 부정하는 타자화, 공동체의 상실과 관계의 단절로부터 비롯된 익명성, 다양성을 밀어낸 획일화에서 기인한 불평등, 자연환경의 파괴와 개발로 인한 건조환경의 확산, 정주와 이동의 불균형 또는 공간과 실천적 경험의 불일치가 초래하는 무장소성과 같은 일상의 위기를 일컫는다.

「외판방」의 배경이 되는 도시공간은 개인의 삶의 터전이자 시대적 지향점이었던 근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1970~80년대 서울의 도시이미지는 곧 도시 소외를 겪는 작가의 심상이다. 이후 심화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거 불안정 해소와 공공주택 공급, 공간복지 개념의 출현, 공공건축의 중요성 인식 등이 제도화와 도시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판방은 「지옥고」²⁷⁾와 같은 다른 형태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한다. 노동과 삶의 불안정성이 극심해진 지금, 도시 문제와 양극화에 맞선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註

- 1) 본 논문은 출간 30주년 기념 개정판을 기본자료로 해석이 이루어졌다. 신경숙, 2025, 「외판방」, 서울: 문학동네.
- 2) 신경숙의 「외판방」은 “이 글은 사실도 픽션도 아닌 그 중간쯤의 글이 될 것 같은 예감이다. 하지만 그걸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라는 물음으

로 시작해 같은 물음으로 맺는다. 작가의 고백과 같이 소설은 작가가 창작한 인물이 서사의 중심에 있기보다 스스로 경험한 공간과 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이므로, 시대의 도시공간과 생활상을 살펴보기에 매우 적절한 자료가 된다. 장편소설 「외판방」 1판은 1995년 10월에 출간되었다.

- 3) 중층적 서사와 메타픽션적 성격, 생성적 글쓰기로 소설은 두 개의 서사와 메타픽션적인 부분으로 구성된다. 주된 서사와 시공간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제2의 서사는 소설 집필 당시인 1994~1995년경의 ‘나의 개인적 일상이나 사회, 90년대 중반의 시대적 사건을 언급한다. 중층적 서사구조와 메타픽션적 성격은 한국 장편소설의 새 경지를 열었다. 한기옥의 평론에 따르면, 신경숙 작가의 이런 경향은 「외판방」(1995)에서 「엄마를 부탁해」(2008)와 「아버지에게 갔었어」(2021)로 이어진다. 이 세 장편은 한국 근대의 가족과 공동체의 변화상을 새로운 사유와 감각으로 탁월하게 그려낸 장편 삼부작으로 꼽힌다.
- 4) 프랑스 번역서 「La chambre solitaire」, 영어 번역서 「The Girl Who Wrote Loneliness」를 제목으로 각각 출간되었다. 한국 근현대 문학과 노동사 연구자인 루스 배러클러프(Ruth Barraclough)는 ‘외판’의 사회구조적 함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고독으로 해석해 ‘외판방’을 ‘The Solitary Room’으로 번역했는데, 본고는 영문 표기 시 이를 따른다. 배러클러프 교수는 “한국은 군사문화와 결합된 독특한 산업화 과정을 겪었어요. 덕분에 수많은 산업 영웅이 등장했고, 그 뒤에선 여공처럼 묵묵히 헌신한 이들이 있었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공들은 야학을 통해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하려는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라고 설명하며 한국만의 독특한 여공 문화에 주목했다.
- 5) 장소의 본질은 ‘외부’와 구별되는 ‘내부’의 경험 속에 있으며, 어떤 장소의 안에 있다는 것은 거기에 소속된다는 것이자 그곳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관계에서 비롯된 장소의 내·외부성에 대하여 렐프는 실존적 외부성(Existential Outsideness), 객관적 외부성(Objective Outsideness), 부수적 외부성(Incidental Outsideness), 대리적 내부성(Vicarious Insideness), 행동적 내부성(Behavioural Insideness), 감정이입적 내부성(Empathetic Insideness), 실존적 내부성(Existential Insideness) 등 7가

지로 분류하였다.

- 6) 동아일보 1963년 7월11일자 기사에 따르면, 그 일환으로 재일교포수출상품전시회를 개최하여 공업단지 입주 예정인 재일교포기업체들의 상품을 전시하기도 하였다. 이날 전시회에는 박정희 의장이 참석하였는데, 그는 이 자리에서 “수출산업시범공장 지대로 시내 영등포구 구로동에 있는 사유지와 군용지를 주선할 것이니 모범촌락을 건설토록 하라”고 당부하며 정책 실현을 강조했다.
- 7) 1965년에 설립되어 1982년까지 존재했던 가전제품 회사이다. 1966년 구로공단 제1단지에 공장을 세워 가동했고, 1968년 일본의 샤프와 기술제휴로 가전제품을 생산하였다. 국가기록원의 자료에 따르면, 동남전기는 공단 업체 중 최초로 139,893달러의 트랜지스터 라디오와 티비 수상기를 일본으로 수출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 8) 현 산단정책연구소의 전신인 한국공단연구소에서 1982년 발간한 「한국공단총람」에 근거해 정리한 자료를 논문에서 재인용했다. 이상철, 2012, “수출산업단지의 형성과 변모,” 동향과 전망, 85, 223-263.
- 9) 1990년대부터 증가했던 외국인도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가리봉동의 총 인구 수는 12,521명이며, 이 가운데 등록외국인은 3,782명으로 전체 인구의 30.2%를 차지한다. 등록외국인 가운데 조선족의 비율이 높고, 영등포구 대림2동(38.7%)과 함께 등록외국인 비율이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0) 1960~70년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최소한의 가림막만 갖춘 옷장의 모습이 당시 파격적인 노출로 화제가 된 비키니 수영복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의 간이가구이다. 철제 프레임에 부직포나 비닐로 마감하고, 지퍼로 여닫는 형태이다.
- 11) 1인 기준 주거면적은 프랑스 사회학자 송바르 드 로브(Chombard de Lawve)가 제시한 8~16m², 국제주거회의의 15m², 국내 건축학자 이광노의 11.5~14.8m²(3.5~4.5평) 등 다양한 기준이 공존해왔다. 2011년 공고된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은 14m²이다. 또한 주택은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 생활 수준 향상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1인 가구 면적 상향 조

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12) 전남일의 논문에서 추출해 재인용한 내용이다. 전남일, 2011, “최소한의 주택”의 사회사적 변천과 공간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7(3), 191-202.
- 13)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획된 주택을 일컫는다. 도시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1990년 시행한 건설교통부 지침을 준수했으며, 법제화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됐다. 분양 목적의 다세대주택과 구분되는 임대 전용 주택으로 가구 수는 2~19가구로 제한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가구별 등기가 불가능하고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실제로 다가구주택은 1991년 이후 2011년까지 총 44만 7,232호가 건설되어 약 260만 6,214세대를 공급하였다. 이 주택 유형은 2010년 이후 1인가구를 위한 임대형 원룸주택으로 다시 주택시장에 대량 공급되고 있다.
- 14) 다중주택은 하숙집에서 유래한 주거유형으로 다가구주택에 앞서 1988년 법제화됐다. 법령에 따르면 ①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실별 욕실만 설치 가능, ③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²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④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5) 렐프(Edward Relph)는 인간이 장소와 맺는 관계의 깊이와 태도에 따라 장소성의 개념을 세분화했다. 집과 같이 장소에 소속되고 동일시되는 장소 경험을 실존적 내부성(Existential Insideness)이라고 하고, 실존적 외부성(Existential Outsideness)은 장소에 대한 소외감과 단절을 의미한다.
- 16) 장소상실과 연관된 개념으로 도시(적) 소외는 자본주의적 도시화 속에서 발생하는 장소 소외를 일컫는다. 현대 도시인들이 거주공간에서 정체성을 잃고 익명화되고 파편화되는 현상이자,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이론에 기반하여 거주자가 도시공간의 생산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일상생활이 자본의 논리에 지배받아 공간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현상을 뜻한다. 젠트리피케이션, 공공성이 결여된 상업 공간, 자연환경과의 단절 등으로 나타

- 난다. 외딴방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 17)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중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로, 사회 인프라 및 국가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가별 도시 개념이 다소 상이하나, 최근 보완된 UN 기준에 따르면 도시 지역은 인구 5만 명 이상이면서 1km²당 1,500명 이상의 인구 밀도를 가진 ‘도시(city)’와 인구 5,000명 이상이고 1km²당 300명 이상의 인구 밀도를 가진 ‘타운(town, 읍면급 소도시)’으로 나뉘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농촌(rural)에 해당된다. 세계적으로도 도시화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5%를 넘었으며, 2050년까지 7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은 환경오염 증가, 야생동물 서식지 손실, 기반시설 부담 초래, 주택 부족 및 가격 상승과 기반시설 접근성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반대로 농촌에서는 노동력 부족과 경지 이용률 하락, 고령화 현상 등으로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최소 수요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 18) 한국수출입산업공단 삼십년사, p282. 추가적으로 1980년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구로공단 여성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촌 출신 66.1%, 중소도시 출신 25.5%로, 지방 출신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19) 경제기획원의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기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1975년 15~19세 47.6%, 20~24세 56.5%로 정점에 달했다. 동일한 시기 농업분야 여성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경공업 중심 산업화의 핵심적 원동력이 연소한 여성, 이들이 제공한 노동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 20) 루스 배러클러프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 ‘여공(女工)’이라는 단어가 신문에 등장한 최초의 기록은 일제강점기인 1919년이었다. ‘공순이’와 함께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를 낮춰 부르던 말이다. 80년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쳐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을 노동권을 가진 주체로 인식하며 ‘여성 노동자’로 전환되었다. 배러클러프는 한국문학에서 ‘여공’의 재현이 ‘굴욕적이고, 비참한 존재’, ‘희생양’ 등의 감상적 해석에 기대왔다고 지적하면서 여공문학을 통해 새로운 여성 노동계급의 주체성을 강조했다.
 - 21) ‘공장체제’는 사회학자인 마이클 부라보이(Michael Burawoy)가 주창한 개념이다. 노동자의 생산과정 참여와 생산과정 내 권력관계를 다루며, 공장체제를 통해서 이윤 극대화를 위한 효율성과 통제 구조를 갖춘 자본주의를 설명한다. 박숙자의 논문에서 재인용한 내용이다. 박숙자, “1980년대 공장체제 하 ‘외딴’의 정동,” 우리문학연구, 79, 325-354.
 - 22) 조옥라의 논문과 1980년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조사보고서를 정리 인용한 내용이다. 조옥라, 1994, “가부장적 기업구조와 여성노동운동,” 사회과학연구, 3, 39-60.
 - 23) 초·중등교육법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 등의설치기준령 등에 근거해 운영했던 제도이다. 특별학급은 대부분 기존의 인근 중·고등학교에 야간으로 부설되는 형식을 취했으며, 산업체가 직접 설립, 운영하는 산업체 부설학교와 공존했다. 교육부 통계연감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학생수는 1987년 65,072명에 이르렀으나,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학생 수 급감과 2000년대 폐교 증가로 관련 조례도 폐지되었다.
 - 24) 앞서 1969년 한진빌딩, 대연각호텔 등이 경제개발에 따른 업무공간 수요를 반영해 20층 규모로 건립되었다. 연이어 1970년 준공된 최고높이 114m 삼일빌딩은 1985년 대한생명 사옥인 63빌딩 개관 전까지 대한민국 최초의 마천루로 간주되었다. 1970년대 대우빌딩, 현대빌딩 등 기업 사옥이 서울 도심에 20층 이상 연면적 2만평 내외의 대규모로 속속 들어서며, 도심 과밀과 수도권 집중의 우려를 가중시켰다. 주로 타워형 업무시설이 고층건축물을 차지하던 흐름은 2000년 초반 주상복합아파트의 출현으로 달라진다. 2004년부터 69층 타워펠리스 3차 G동이 한동안 한국 초고층 건축물의 자리를 지켰다. 2017년 123층 554.5m의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어 한국 최고의 건물이자 국내 최초로 100층을 넘긴 건물이라는 기록을 갖게 되었다.
 - 25) 서울역은 1900년 본격적인 철도 운행으로 영업을 시작해 1925년 경성역으로 역사 준공, 1947년 서울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00여 년간 수도 서울의 관문 역할을 했고, 2004년 KTX 개통에 따른 신역사 개관으로 전기를 마련했다. 원 서울역 역사는 도쿄역을 설계한 일본 건축가 다쓰노 긴고

(辰野金吾)의 제자 쓰카모토 야스시(塚本 靖)가 설계했다고 알려져있다. 건축물은 네오 르네상스 양식과 비잔틴풍 돔이 결합된 절충주의 양식이다. 근대의 주요 교통수단이었던 철도역사는 단순한 터미널 기능뿐만 아니라 도심지의 문화공간이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최초의 양식당 '서울 역그릴'이 위치하기도 해 유명인들이 즐겨 찾았고, 이상의 소설 '날개'에도 등장한다. 문체부 주도로 2012년 '문화역서울 284'로 공공문화공간으로 재생해 현재에 이른다.

철도는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1980년대 전국적인 고속버스 네트워크 구축과 터미널 체계화 전까지 국내 대표적인 교통수단이었다.

- 26) 켄달의 저서 『Sociology In Our Times』에서 산업화와 도시화, 근대화의 관계를 설명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Urbanization accompanied modernization and the rapid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 27)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로, 현재 대한민국 청년층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이다. 2025년 발표된 한국도시연구소의 보고서 지옥고 실태와 대응 방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24년 48.1만 가구에 이르며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참고문헌

- 김영기, 1983, “구로공단 인근의 근로자 및 저소득층 주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찬, 2002, “글쓰기와 타자: 신경숙의 「외판방」론,” 한국문학이론과비평, 6(2), 144-165.
- 김원, 2015, “구로공단이라는 장소의 소멸,” 한국학논집, 59, 99-174.
- 김한배·조윤승, 2019, “도시문학을 통해 본 서울 도시경관의 인식,” 서울도시연구, 20(4), 45-70.
- 박숙자, 2023, “1980년대 공장체제하 ‘외판’의 정동: 단편 「외판방」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79, 325-354.
- 박철수, 2017, 「근현대 서울의 집」, 서울: 서울역사편찬원.
- 백낙청, 1997, “「외판방」이 묻는 것과 이룬 것,” 창작과 비평, 25(3), 230-250.
- 서울역사박물관, 2015, 가리봉 오거리,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 서은주, 2022, “「여공」의 알리바이와 젠더 노스텔지어: 신경숙의 「외판방」을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81, 77-101.
- 양운모, 2024, “1970년대 도시개발과 주거 문제의 소설적 형상화 연구,” 융합인문학, 12(3), 101-122.
- 예지숙·소현숙·김이경·후지타타다요시·장미현·이세영, 2024, 「근현대 서울지역 여성의 노동과 생활」, 서울: 서울역사편찬원.
- 유성호, 2014,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서울’ 형상 연구,” 서울학연구, 23, 195-226.
- 이상철, 2012, “수출산업단지의 형성과 변모,” 동향과 전망, 85, 223-263.
- 이은숙·신명섭, 2000, “한국인의 고향관: 그 지리학적 요인과 정서,” 대한지리학회지, 35(3), 401-426.
- 이은숙·정희선·김희순, 2008, “1950년 이후 도시소설에 투영된 수도권의 도시화에 의한 공간변화,” 지리학연구, 42(4), 605-620.
- 이재영, 2001, “상실의 세계와 세계의 상실: 신경숙론,” 창작과비평, 29(4), 251-270.
- 이혜정, 2022, “서울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도시, 최인호 소설과 70년대 전후의 서울,” 국토, 494, 94-99.
- 장미경, 2004, “근대화와 1960-70년대 여성 노동자,” 경제와사회, 61, 106-134.
- 장세훈, 2014, “구로 수출산업공단 조성의 재해석,” 대한지리학회지, 49(2), 160-177.
- 전남일, 2011, “최소한의 주택”의 사회사적 변천과 공간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7(3), 191-202.
- 정현목, 2016, 「마르크 오제, 비장소」,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조남현, 2016, “한국현대작가들의 ‘도시’ 인식 방법,” 현대소설연구, 35, 7-25.
- 조옥라, 1994, “가부장적 기업구조와 여성노동운동,” 사회과학연구, 3, 39-60.
- 최병두, 2016, “도시적 소외와 정의로운 도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3), 576-598.
- 최병두, 2023, 「도시 소외와 공간 정의」, 서울: 한올아카데미.
- 한국수출산업공단, 1994, 한국수출산업공단 삼십년사, 서울: 한국수출산업공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1, “근로 여성 50년사의 정리와 평가,” 세미나자료집.
- 한기옥, 2022, “장편소설의 새 경자: 신경숙, 「외판방」,” 현 대비평, 12, 162-166.
- 한성미, 2019, “문학작품에 나타난 외부적 장소성 분석,” 서울학연구, 74, 81-111.
- 한원균, 2008, “한국 현대문학과 도시공간의 의미,” 한국문예창작, 7(2), 7-36.
- 허병식, 2013, “내적 망명의 서사, 유보된 성장의 기획 : 신경숙의 「외판방」에 나타난 교양의 기획,” 외국문학연구, 50, 323-343.
- Augé, M., 1992, *Non-lieux*, Paris: Seuil(이상길·이윤영 역, 2017, 「비장소」, 서울: 아카넷).
- Barracough, R., 2011, Girl-love and suicide re-reading Shin Kyong-suk's 「The Solitary Room」, *Comparative Korean Studies*, 19(3), 307-338.
- Barracough, R., 2012, *Factory Girl Literature*, Oakland: UC Press(김원·노지승 역, 2017, 「여공문학: 섹슈얼리티, 폭력 그리고 재현의 문제」, 서울: 후마니타스).
- Kendall, D., 2022, *Sociology in Our Times*, Independence: Cengage.
- Relph, E., 2008,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Limited.
- Said, E. W., 1979,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박홍규 역, 2015,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 Tuan, Y-F., 2001, *Space and Pla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구동희·심승희 역, 2011, 「공간과 장소」, 서울: 대운).
- 건축신문, 2021년 12월 16일자, “힐튼호텔, 아직 현재진행형,” <https://architecture-newspaper.com/v27-c10-hilton>
- 경향신문, 2014년 10월 6일자, “[창간기획] 신살, 구로공단과의 대화”
- 국가기록원, <https://theme.archives.go.kr>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go.kr>
- 국토정보맵,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
-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i.go.kr>
- 동아일보, 1963년 7월 11일자, “수출상품에 전력토록,”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aver>
- 디지털구로문화대전, <https://guro.grandculture.net/guro>
- 매일경제, 1976년 1월 5일자, “[서울의 마천루] 대우센터 빌딩,”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aver>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생활문화 자료조사] 가리봉동,” https://museum.seoul.go.kr/archive/archiveNew/NR_archiveList.do?ctgryId=CTGRY623&type=A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생활사 자료조사] 서울시민의 생활,” https://museum.seoul.go.kr/CHM_HOME/ebook/ecatalog.jsp?Dir=594&catimage=&callmode=admin
- 서울통계정보시스템, <http://stat.seoul.go.kr>
- 오픈하우스 서울 2025, “솔로하우스, 김범준,” <https://www.ohseoul.org/posts/programs/solrohauseu-2>
- 포브스코리아, 2018년 3월 2일자, “Seoul Digital Industrial Complex - 상전벽해(桑田碧海) 구로공단 50년,” <https://www.forbe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87>
- 프레시안, 2014년 1월 30일자, “[김경민의 도시이야기 27] 70년대 서울의 아픈 역사의 원형,”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12992>
-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s://www.kicox.or.kr/history>
- 한국여성유권자총연맹, 1980, “여성근로자 실태조사보고서: 구로·구미공단을 중심으로,” <https://archives.kdemo.or.kr/common/gallery-view2>
- EBS 다큐, 2019, “[건축탐구 집] 구로공단에서 구로디지털단지로,” <https://www.youtube.com/watch?v=CcPIT8saqGM>
- 교신 : 박성신, 54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558, 국립군산대학교 건축공학부(이메일: sspak@kunsan.ac.kr)
- Correspondence: Sungsin Pak, 54150, 558 Daehak-ro, Gunsan, Jeonbuk, South Korea, Department of Architecture & Building Engineeri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Email: sspak@kunsan.ac.kr)

투고접수일: 2026년 4월 27일
심사완료일: 2026년 5월 31일
게재확정일: 2026년 6월 8일